

익산 공공승마장, 승마 대중화 견인

XR체험관·포니체험장·야간승마장 등 운영... 확장사업 통해 거점 승마도시 도약 나서

익산 공공승마장이 시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승마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익산시는 2022년 개관한 익산 공공승마장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익산 공공승마장은 2022년 3월 개관한 첫 해 열 달간 4,196명의 이용객을 기록했다. 이듬해에는 8,173명으로 이용객이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7개월간 8,827명이 다녀가며 이미 전년 기록을 넘어선 상황이다.

시는 XR말산업체험관, 포니랜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지난 2월 문을 연 'XR말산업 체험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첨단 기술을 통해 승마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큰 매력을 지닌 공간이다.

2층 규모로 △마차 아트랙션 △MR 스크린 승마 △VR 말 관리사 체험 △말 품종 알아보기 아트랙션 △라이브스케이치 △AR 말 포토존 등 6가지 체험이 마련돼 있다.

이러한 체험은 어린이는 물론이고 실제 말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어른에게도 승마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 승마인에게도 간편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는 또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최근에는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문을 연 포니체험장이 가족단위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포니'는 조랑말의 영어 표현인데, 조랑말은 몸이 작고 성질이 온순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포니체험장에서는 조랑말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익산시는 2022년 개관한 익산 공공승마장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7개월간 8,827명이 다녀가며 이미 전년 기록을 넘어섰다.

있다. 아이들이 조랑말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먹이를 직접 쥐보는 체험이 가능해 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이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는 익산 공공승마장의 또다른 매력은 바로 '야간 승마 감상'이다. 낮 시간대에 승마를 즐기던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야간 감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승마 체험과, 일반 주간 감상, 힐링 승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익산 공공승마장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시설 확충에 나선다. 경기용 마사를 확충해 승마대

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마사 임차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특히 실내 마장이 아닌 자연에서 말을 타는 외승길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보강해 거점 승마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방침이다.

유원향 바이오농정국장은 "귀족 스포츠로 여겨던 승마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승마장 운영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근 농촌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지정

최연성 직무대리 "모든 대학 운영 차질 없이 지속될 것"

국립군산대학교는 최근 발생한 총장 구속 사태로 인한 학교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사 운영의 조속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16일자로 최연성 부총장(64)을 총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최연성 총장 직무대리는 17일, 학내 구성원들에게 '사랑하는 국립군산대학교 가족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갑작스러운 총장 구속 사태로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라고 전하며 "수시모집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1일 오전 대학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총장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학 운영의 혼



이 차질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구성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이번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고, 대학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대학 구성원과 지자체, 지역 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주요 현안사업 국비확보 총력

강영석 부시장, 국회 방문...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지원 요청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검열을 하고 있다.

21일 익산시에 따르면 강영석 부시장은 국회를 방문해 이춘석, 한병도, 조배숙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이춘석·한병도 의원을 찾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에게는 전북권 광역생활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광역

전철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국도 21·23호 개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조배숙 의원의 면담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적극 요청했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강영석 부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섬주민, 향로 운임 부담없이 '천원으로'

관내 8개섬 · 도선 운항 섬 거주 주민 대상, 1000원 요금제 시행

군산시가 관내 8개섬 주민들과 도선이 운항하는 섬에 거주하는 주민 대상으로 천원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여객선의 경우 8개섬(장자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개야도, 연도, 어청도)주민, 도선은 2개섬(비안도, 두리도) 주민이며, 매표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신분증을 제시해 해당 섬주민임을 확인 후 표를 구매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 민생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도내 천원여객

선 운임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그간 기존 섬주민들은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통해 반값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과 도선 운임료가 늘상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있어왔다.

군산시는 이런 주민들의 부담이 이번 천원요금제 사업 추가 지원으로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산시는 여객선과 더불어 도선을 이용하는 섬 주민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여객선사 및 도선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9월부터는 연안여객선과 도선을 이용하는 해당 섬주민 대상 천원요금제 운임도 지원될 예정이다.

군산시 박동래 수산식품정책과장은 "비연륙도서 주민들이 여객선과 도선을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본 사업과 더불어 해상교통 이용 활성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4년 3분기 민방위훈련 실시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군산시가 22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에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이뤄지며,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치러진다.

22일 오후 2시 정각에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리면 훈련 공습경보가 발효된다. 이 때 시민들은 가까운 민방위대피소로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군산시에는 77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포함 81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다짐돌업에서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5분 동안 전국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도 통제된다.

이와 함께 교육청사거리에서 연안사거리까지 1.7 km 구간은 소방차 비상차로 확보 훈련으로 15분간 차량 이동이 통제된다.

이후 오후 2시 15분에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이동도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오후 2시 20분에 경보가 해제된 뒤 일상으로 복구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전기차 화재예방

대책 실무회의 개최

군산시(시장 김임준)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시민의 불안 해소와 화재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산시는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 및 지하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 소방서 및 관련부서간 실무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정부정책과 타 지자체 대응책,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의 역할 및 부서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및 설치 △전기차의 지상주차 유도 △지하주차장의 화재 안전설비 확대 및 점검 △전기차의 과충전 방지와 완속 충전기 보급 확대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기차 안전관리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2024 익산학 시민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익산시와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역 역사·문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2024 익산학 시민문화학교'(이하 '익산학') 수강생을 9월 1일까지 모집한다.

'익산학'이란 역사, 문화, 인물 등 익산의 다양한 분야를 탐구하는 현장 중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익산학은 9월 14일 시작해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익산 시장론, 익산 습지론, 익산 마한론 등 3과목이 운영되며 과목당 3주간 진행된다.

익산 시장론은 남부시장과 금마시장, 여산시장 등을 탐구하며 시민 삶의 현장을 직접 느낄 수 있다. 익산 습지론은 강과 습지 등 자연과 환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익산 마한론은 마한과 백제의 중심지인 익산을 살펴본다.

참여 신청은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culturecityksan.or.kr)을 통해 과목별 30명씩 총 90명을 모집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도시지원센터(070-4909-1196)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